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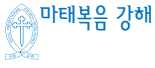
§ 2015년 포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 21:12-17)

The House where All People Pray

(Matt. 21:12-17)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바 있고,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적이고 타락한 행동들로 말마암아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생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 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12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등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마다 예루살렘 성에는 30만 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야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고 성전세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엄청난 돈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다녔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사지 않은 짐승은 트집을 잡아 불합격 시켜 다시 사게 하거나 환전상들에게 뒷돈을 받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는 더러운 구조적 비리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 하시니라”(13절).

예수님은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뒤로 돈을 주고 받으므로 하나님의 전이 감당해야 할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는 자신들은 버젓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들의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주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렘 7:4 이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개인의 욕심이나 목적, 혹은 개인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15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인간의 욕심들을 청소하시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어린이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두고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랑과, 성도들의 드높은 찬송 소리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first incident of which Jesus cleaned the temple was written in the text after he entered it in Jerusalem. From the time when he started his public life and until the closing stage, Jesus cleaned the temple. This means that because Jesus thought that the temple became filthy due to the human's egoistic and corrupted actions. He intentionally carried out his work of cleaning the temple at the beginning of his public life and at the end.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drove out all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ose selling doves” (v. 12).

The Israelites entered Jerusalem and gave offerings to God, at least three times a year, on the Passover, Feast of Weeks, and Feast of Tabernacles. At this time, three hundred thousand Israelites came together in Jerusalem, but they needed sacrificial offerings to give God. One who lived near the Temple could bring an animal that was raised, but the others who lived far from the Temple had to buy an animal in the Temple and pay tribute money. Therefore, every holiday, an immense amount of money was exchanged around the Temple center, and when priests found fault with an animal, they rejected it, and let people buy the animal in the Temple. Then, they took a secret payment from the money changer, in another words, they did misbehave themselves. Like this, the structural corruption was too extreme in the Temple.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v. 13).

Jesus considered the public behavior of religious leaders accursedly, because they conspired with merchants, exchanged money in secret, and lost the original function of temple of God. They thought what they worshipped God is to do what is good. And He quoted the word of the prophet Jeremiah, in the following.

Do not trust in the deceptive words,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Has this house, which bears my name, become a den of robbers to you?” (Jeremiah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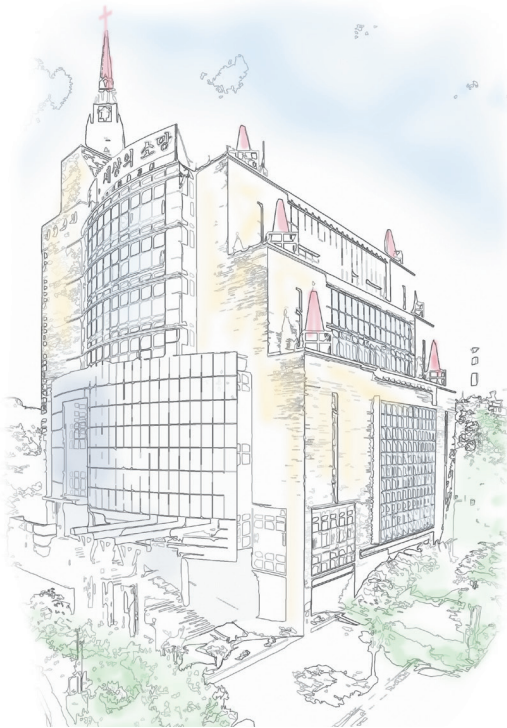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That is why we never use the church as a tool for an individual greed and purpose, or the accomplishment of individual vision.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law saw the wonderful things he did and the children shouting in the Temple are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v. 15).

Jesus cleaned the dirty greed of human, healed the poor and the pathetic, and He did his mission of consolidation for them. And children saw Jesus who worked for them and praised Him, “Hosanna, the son of David”. However, by looking at the natural, wonderful and reasonable works of Jesus,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law rather devaluated what Jesus had worked as strange business.

My beloved Christians,

The Temple must be a house where all people pray, and be filled fully with the love of helping the poor, and the Christians' songs singing in a high voice. And above all, this must become a ship of salvation to look for lost souls and save them. In this sense, I earnestly hope that our Seoul Church will be the church of which such a wonderful work occur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비전2020 후원자의 밤

오늘 찬양 예배 후, 801호에서

우리교회는 “비전2020운동(본부장 : 최광성 장로) 후원자의 밤” 행사를 오늘 찬양예배 후 801호에서 갖는다. 후원자의 밤 행사에는 해병대사령부 중앙교회, 육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육군 3사단, 20사단, 23사단, 해병대교육훈련단 교회 장병들과 우리 교회 파송 군선교사 6명 등이 참석한다.(총 88명 참석 예정)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이 원대한 비전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중등부 : 1월 22일(목)~24일(토) / 아가페타운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7(금)~2.28(토)	서울교회	하나님, 저 왔어요!	박노철 목사 /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박노철 목사 / 양세라 목사
유년부			복음으로 사는 유년부	박노철 목사 / 고수은 전도사
초등부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박노철 목사 / 김안성 목사
중등부	1.22(목)~1.24(토)	아가페타운	예수님을 만났어요!	박노철 목사 / 이진광 전도사
고등부	2.26(목)~28(토)	아가페타운	복음을 통해 얻는 자유	박노철 목사 / 천세종 목사
청년부	2.12(목)~1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마6:10)	서준권 목사 장재원 전도사 / 정대는 전도사
청년2부				
사랑부	2.8(주일)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부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7(토)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임규현 목사

동계 비전트립 은혜 중에 교육중

2월 2일(월)~12일(목) / 미얀마 양곤

선교위원회(위원장 : 이영기 장로)는 2015년 동계 비전트립 지역을 미얀마 양곤으로 확정하고 단장으로 최차순 장로를 임명하고 선교훈련중이다. 동계비전트립은 교회학교 및 선교사 사역을 지원하게 된다. 선교일정은 2015년 2월 2일(월)~2월 12일(목)이며 현재 단원들은 현지 교회 학교의 교육과 현지언어 등을 교육 중에 있다. 현재 많은 물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많은 성도들의 협조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최차순 장로(010 - 9042-3388)에게 하기 바란다.

선교일정은 2015년 2월 2일(월)~2월 12일(목)이



김철홍 목사 (정신대 교수)

장년부 성경공부 개강

오늘 1부 예배 후 로마서 강해 / 강사: 김철홍목사

오늘 장년부(부장:이학주 집사) 성경공부 한다. 1부 예배 후 본당 2층에서 열린다. 성도 김철홍목사를 강사로 로마서 강해를 시작 들의 많은 참석바란다.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김형상,최금숙(1) 이성우,홍성애(1) 오세복(0.5) 송인권(0.5) 송행희(1) 하인선, 남태순(1) 김영희, 이현정(0.5) 김재중, 김유경(1) 홍춘기(0.5) 이남성, 최영란(1) 원용규, 박이선(1) 전현주(1) 오치열(0.5) 박미경, 노영석(0.5) 김장섭, 최춘숙(0.5) 김요셉, 이인숙(0.5) 추희경(0.5) 한경신(0.3) 최보여전도회(1) 바울선교회(0.5) 스테반회(2) 제1권사회(2) (다음주 계속)

비전2020 후원자

김형상(1) 하인선(1) 이경규(2) 송인권(1) 유수엽(1) 홍석호(1) 강희자(1) 손태현(2) 원용규(1) 전현주(1) 이남성(1) 오치열(1) 정애신(1) 박인규(2) 권혁만(2) 장정화(1) 12-1 다락방(1) 박미경5(1) 박내길(1) 마승지(1) 마승완(1) 송인덕(2) 이경희10(3) 한경신(2) 바울선교회(2) 스테반회(5) (다음주 계속)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정길영(0.5) 이준호3(1) 3-6 다락방(0.5) 서양지(0.5) 문성주(1) 하인선(1) 김형상(1) 김지영, 김선혁(0.5) 김혜연(1) 김복희(0.5) 양지훈(0.5) 박동률(1) 원용규(1) 전현주(1) 임종현(0.5) 표현희(1) 최성옥(0.5) 박미경5(0.5) 박내길(1) 강수용(0.5) 장기연(0.5) 김선식(1) 이미숙(0.5) 이호(1) 한경선(0.3) 스테반회(2) 제1권사회(2) 제2권사회(1) 바울선교회(0.5) (다음주 계속)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58)

(문 15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마16:28)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생전에 재림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답) 마16:27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신 후 28절에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기보다 그의 임재를 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3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가능한 해석은 바로 그 다음 장인 마17장에 나타난 변화 산에서 주님이 영광중에 나타날 것을 제자 중 볼 자들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나타나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눅 9:31). 이 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영광중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보다는 별세를 말씀하신 것이므로 마16: 28에서 주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오순절에 교회 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것을 말씀한 것으로 보는 이들의 주장입니다(행2:2-4), 주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니”(요14:18)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다른 보혜사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120명 문도에게 불의 혀같이 임함으로 각기 제 나라 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것도 마16:28의 말씀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주 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기(마24:2) 때문에 이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인 살인자들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이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셨다는 말씀을 설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왕으로 제자들이 아직 죽기 전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계속)

천국시민양성 - 꿈나무 성품어린이 찬양예배

새롭게 시작한 "꿈나무 성품 어린이 찬양 예배"



김안성 목사 (어린이 찬양예배)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동안 어린이 찬양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주일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항상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달란트를 챙겨주시고 풍성한 달란트 파티를 준비해 주시고 깨끗이 교실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묵묵히 수고하신 어린이 찬양 예배 선생님들의 큰 수고의 기반 위에, 2015년도부터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을 도입한 새로운 어린이 찬양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토요일에 제 5기까지 진행했던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은 매 학기 35-45명의 제한된 인원을 모집하여 학기당 10-16주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만 성품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주일로 시간을 옮겨 "꿈나무 성품 어린이 찬양 예배"로 통합되었고, 방학 없이 매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701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원과 연령도 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첫 주일에는 5세 이상 어린이들이 58명 참석하였고, 중학생들이 11명 참석하였습니다. 중학생들은 보조 담임교사로 섬기면서, 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태도와 성품을 토대로 월별 성품 주제를 정하였고, 다양한 방법과 놀이 등을 통해 배우고 연습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한 "꿈나무 성품 어린이 찬양 예배"가 1년 52주 내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간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새롭게 섬기시게 된 선생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진 : 강재훈 집사 (꿈나무 성품 어린이 찬양예배 유년부 부감)



천국시민양성 - 장한 어머니상 수상 (개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 아이



김은정 집사 (4교구)

먼저, 2014년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의 세 아이들이 교회학교 예배에 개근한 것으로 장한 어머니 상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세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더욱 바르고 온전하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의 매 주일아침은 정신없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영주가 초등부 찬양대를 하고 있어서 8시 30분까지 교회에 가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가도 되는 중등부 오빠인 영훈이와 유년부 동생 영은이에게 서두르라는 애원과 잔소리를 끊이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일 아침 아이들의 이러한 짜증 섞인 시간대

틈에 저의 훈육이 더해져 가정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과정에서 생긴 거룩한 불만족의 표현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015년 새해부터는 엄마인 저의 훈육의 잔소리만이라도 줄여 가면서 주일 예배를 더욱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 주시는 믿음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이 부족한 자에게 세 아이를 맡기시고 이렇게 '장한 어머니'라는 이름까지 붙여 주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열심이 과분하기까지 합니다.

이 과분한 믿음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 아이들을 하나님 제 일주의 신앙으로 가르치며 양육하여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으로 세상에 파송되길 소원합니다.



겨울수련회 초대 - 중등부

예수님을 만났어요



김광욱 집사 (중등부 부장)

할렐루야! 저희 중등부는 오는 1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갖 고자 합니다.

저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수련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확신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중등부를 지도하고 계시는 이진광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림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을 맞아 새해맞이 온가족 성경통독대회를 1월 15일(목)~16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01호(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가졌다. 성경통독범위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이었다.



아멘관현악단 단원 모집

3부예배 봉헌송을 담당하는 아멘관현악단(대장 : 김혜연 집사)은 2015년 봉사 할 단원을 모집한다. 세례교인으로 5년 이상의 연주 경험이 있는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는 임범창 집사(지휘자 010-7222-3713)나 김혜연 집사(010-3923-9913)에게 문의 바란다.

* 모집 분야 : 바이올린 4명, 비올라 2명 첼로 3명 피아노 1명 타악기1명

2014년 직분자양성부 수료자 명단

2014년도 직분자양성부 4주 교육 수료자는 총 123명이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본 교육은 직분자가 되기 위한 사전 교육으로 직분자가 가져야 할 성경적 가치관과 봉사 자세 그리고 서울교회의 조직 및 각 부서의 기능 등을 교육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전입자의 경우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교육은 4주 과정으로 매 주일 2부 예배 후 606호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새가족부 4주 교육 과정을 수료한 세례전입자, 세례수여자, 입교자, 개종자 등이며 기존 성도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교회에서는 서리집사 임명 시 본 과정의 수료를 필수로 하고 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민정3, 고은선, 고혜경, 곽현수, 구제학, 권은경, 권정현1, 기세현, 김미애3, 김경순4, 김경화6, 김기훈, 김동

건2, 김무석, 김미선5, 김선구, 김선화4, 김성예, 김숙자6, 김승배, 김영욱1, 김완식, 김은경7, 김인수4, 김정미5, 김정웅, 김정희17, 김종욱1, 김진호6, 김찬국, 김철주1, 김치만, 김태경7, 김태균4, 김태근, 김현희6, 김희순2, 노용금, 맹주은, 민석훈, 민영기1, 박경숙3, 박광수1, 박금희1, 박노선, 박명숙1, 박상균, 박성희5, 박애주, 박연욱1, 박영신2, 박영주1, 박윤민, 박은주3, 박인혜, 박종욱 2, 박진선2, 박현주, 박형민1, 방성오, 서강준, 서기호, 서민아, 송혜원1, 신소영, 신인경, 신철호, 양미연, 양미희, 양수미, 연봉수, 오숙희, 오정희2, 오진욱, 우원민, 유안아, 유영일, 유인상, 윤이경, 이경희10, 이금희1, 이남숙1, 이도경, 이삼정, 이상숙3, 이석원2, 이성배, 이수아2, 이영금, 이옥수, 이윤희6, 이윤희5, 이정미, 이종영, 이준현, 이진리, 이춘희2, 이혜경8, 이혜원5, 장기연, 장미자1, 장연재, 장준경, 전영도, 전해정, 전행욱, 정복선, 정성자1, 정순아, 정재욱, 정종민, 조숙현, 조현주1, 주선영3, 진교인, 진종석, 채영희, 최난경, 최미숙1, 추희경, 한경숙1, 함수경1 (총123명)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비전2020운동 후원자의 밤"을 맞이하여 초청받은 장병들과 우리 교회 파송 군선교사, 그리고 비전2020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류충기집사의 지휘로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를 합창 하고, 해병대사령부군악대 금관중주단이 "O sole mio [오 나의 태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연주한다.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안내

아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seoulch@hanmail.net
- 문의전화 : 02-558-1106, 02-2193-8811
- 담당: 송미라 권사

등 정

■ 이종은 원로목사는 1월18일(주) 평강교회 헌신예배설교를 한다. 19일(월) 백양세미나축도, 21일(수) 미래한국미디언이사회 개최예배, 23일(금)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정적운동 임원회를 각각 갖는다.

■ 주일식당봉사 : 도르가전도회(1.18) 리브기전도회(1.25)

■ 금주의 식사 제공 : 양숙란 권사 박은경 성도 가정 전원순 권사, 전광해 선교사, 전광환 권사 조상환 집사 가정 (정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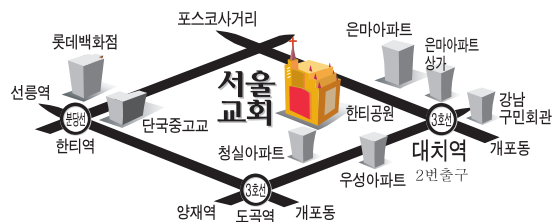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비전2020, 농어촌100교회,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을 위한 후원이 풍성히 이뤄질 수 있도록
2.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가페타운에서 있는 중등부 겨울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3. 매 주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꿈나무 성품 어린이찬양예배"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9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